

◆ 북미

- 캘리포니아주 보험감독청, 주행거리 연계 차보험료 제도 제안
- 美 Life and Health Insurance Foundation 설문조사: 왜 사람들은 생명보험을 들지 않는가?

◆ 유럽

- 독일 코메르츠방크, 알리안츠 그룹의 드레스드너 은행을 인수
- 영국, 신용위기 이후 건설시장 침체로 신용보험 수요가 확대

◆ 일본

- 손해보험재팬, 손보업계 처음으로 내점(來店)형 점포 오픈
- 일본 기업, 해외 기업 M&A 추진 사상 최대

◆ 중국

- 중국, 여행 중 교통사고 '여행사책임보험' 보장범위에 포함
- 통신회사를 이용한 보험상품 증정은 소비자 현혹 행위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캘리포니아주 보험감독청, 주행거리 연계 차보험료 제도 제안

- 캘리포니아주 보험감독청장인 스티브 포이즈너는 주행거리와 연계하는 자동차보험료 책정(pay-as-you-go drive)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고 밝힘.
 - 동 방안이 시행될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자동차 운행 관련 리스크가 주행거리에 따라 정확히 산출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역시 보다 공정하게 책정될 수 있게 됨.
- 캘리포니아주 보험감독청장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자동차 운행을 감소시켜 향후 지구 온난화의 방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되며 자동차 사고를 감소시켜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힘.
- 현재까지의 자동차보험료 산정은 개별 자동차 운행에 대한 연간 예측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실제 주행거리에 의거한 자동차보험상품 생산이 가능해 짐.
 - 그러나 보험감독청은 계약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본 상품 판매를 강권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힘.
- 휴대전화에 GPS(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를 처음 도입한 ‘Snap Trak’의 창업주이기도 한 포이즈너 보험감독청장에 따르면 GPS도입으로 인한 운전자의 위치 추적기록 등 보험료 산출을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내년 가을 이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본 제도를 캘리포니아 주민의 30%가 참여할 경우 2009~2020년 중 CO2 배출량이 5,500만 톤 감소되며(천만대의 차량이 도로상에서 사라지는 효과) 동시에 55억 갤론의 휴발유가 절약되고, 400억 달러의 자동차사고 비용이 감소될 것이라고 환경보호기금(The Environmental Defense Fund)이 밝힘.

(Insurance Journal 9/1)

□ 美 Life and Health Insurance Foundation 설문조사: 왜 사람들은 생명보험을 들지 않는가?

- 미국의 생명·건강보험재단(Life and Health Insurance Foundation: LIFE Foundation)은 켈튼리서치에 의뢰하여 ‘왜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기간: 2008년 8월 12~18일
 - 대상: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18세 이상의 美국민 1,007명
 - 설문조사의 오차범위: ± 3.1 퍼센트

- 본 설문 조사 결과 대상자의 93%가 생명보험이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을 볼 때 생명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
 - 그러나 설문조사의 절반이 충분치 못한 생명보험 보장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아직도 보험 판매 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LIMRA(美생명보험마케팅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 6,800만명이 생명보험을 갖고 있지 않으며 생명보험 가입자도 연평균 소득의 4배만을 생명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수치는 전문가에 의해서 권고되는 금액에 크게 못 미침.

- LIFE Foundation의 CEO인 마빈 펠드먼은 ‘그 어떤 사람도 그들 가족의 재정적 미래와 관련해서는 요행수를 바라는 도박적 행태를 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겠지만 정작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생명보험 보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 바로 그 순간이 도박을 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

- 생명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 다른 상품에 비해 너무 비싸다
 - LIFE Foundation은 생명보험상품은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 비교할 필요가 없으며
 - 또한 보험은 여러 가지 형태의 상품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비용과 관계 없이 가입 가능하다고 주장
 - 예를 들어 연령 35세의 건강한 사람이 20년 만기 50만 달러 보험에 가입할 경우 하루 1달러의 지출이 소요됨.

- 생명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시간이 없다
 - LIFE Foundation은 생명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시간이 없다는 것에 대해 생명의 미래에 관해서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결코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

- 생명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 상품에 대해 잘 모르겠다
 - LIFE Foundation은 생명보험 상품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소비자가 이해하기에 혼동되는 부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
 - 이에 공정하면서도 알고자 하는 정보를 자세히 전달해 줄 수 있는 단체를 이용할 것을 권고
 - 그러나 직장내의 재무담당자 또는 주변의 유능한 전문 보험설계사를 통한 상담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언급

- * LIFE Foundation은 생명보험, 건강보험, 장해보험, 장기간병보험에 관하여 늘어나는 정보 및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1994년에 설립

(Insurancenewsnet.com 9/2)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독일 코메르츠뱅크, 알리안츠 그룹의 드레스드너 은행을 인수

- 독일의 랭킹 2위 은행인 코메르츠뱅크(Commerzbank)는 알리안츠(Allianz) 그룹의 드레스드너 은행(Dresdner Bank)을 98억 유로(약 14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는 드레스드너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담보부채권(Asset Backed Securities)의 손실액인 9억 7500만 유로까지를 포함한 금액임.
 - 알리안츠는 2001년 드레스드너 은행을 240억 유로(약 374억 달러)에 인수하였으나, 재무적으로 생각만큼 실적을 내지 못하는데다 최근 드레스드너 은행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큰 손실을 입자 매각을 추진해 온 것으로 밝힘.
- 코메르츠뱅크는 드레스드너의 투자은행 부문인 드레스드너 클라인보르트(Dresdner Kleinwort)의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인수 후 약 1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함.
 - 한편, 양사는 이 같은 새로운 구조조정 이후 약 50억 유로 규모에 달하는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함.
- 알리안츠 그룹 CEO인 마이클 다이크만(Michael Diekmann)에 따르면, 알리안츠는 인수·합병이 완료되는 내년 말경에는 회사 지분의 약 30%를 소유하게 되면서 코메르츠뱅크의 대주주가 될 것이라고 전함.
 - 코메르츠뱅크는 우선 현금 및 주식으로 드레스드너 은행의 지분 60.2%를 매입한 뒤, 2단계를 거쳐 오는 2009년 말까지 인수를 완료하게 됨.
- 이에 드레스드너 은행 CEO인 허버트 월트(Herbert Walter)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코메르츠뱅크와 드레스드너 은행 모두는 현대적 시스템을 갖춘 고객중심의 새로운 은행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전함.

(Global Reinsurance, 9/1)

□ 영국, 신용위기 이후 건설시장 침체로 신용보험 수요가 확대

- 언더라이터들은 지난 신용위기 이후 건설업체 실적을 바탕으로 상업신용보험(Trade Credit Insurance)을 분석한 결과, 보험료가 약 3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지난 주 영국의 최대 주택 건설업체인 테일러 윌피(Taylor Wimpey)가 발표한 2008년 상반기 실적에서 약 15억 유로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헤스 램버트(Heath Lambert Group)의 신용보증 총괄책임자인 마틴 홀란드(Martin Holland)는 이런 최악의 사업실적은 신용보험회사들에게는 보험금 지급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로 인해 향후 건설회사에게 제공되는 보험의 보장 범위가 일부 축소될 것이고, 이후 보험에 대해서는 전면 거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경기 확대기에는 신용보험의 보험요율은 낮았으나, 경기 악화로 인한 건설 산업의 침체 및 보험금 지급의 증가에 따라 보험요율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다며, 이는 건설 회사의 협력업체인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더욱 큰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함.
- 홀란드는 경기 침체기에는 위험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고 기업의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상업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다른 보험에 비해 신용보험의 판매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전함.
 - 영국보험자협회(ABI: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 따르면, 2007년 신용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수는 2004년 대비 약 39.6% 상승한 13,708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함.
- 그러나, 보험회사에게는 이 같은 경기 침체가 특히 위험한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최근 주된 침체요인들이 보험금 지급 수준을 전부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이 실적발표에 비해 뒤쳐진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음.

(Insurance Times and ABI, 9/4)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손해보험재팬, 손보업계 처음으로 내점(來店)형 점포 오픈

- 손해보험재팬은 2일 개인대상 내점형 보험판매점을 직영으로 19일에 오픈한다고 발표
 - 장소는 도쿄시내의 메이지신구우마에(明治新宮前)역의 구내이며, 보험상품의 신규 계약 모집과 기존 계약자를 위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최근 수년 동안 생명보험회사가 직영하는 내점형 보험 판매점의 설립이 확산되었지만, 손해보험회사가 내점형 보험판매점을 설립하기는 처음
- 내점형 보험판매점은 「손해보험재팬 야사시(easy)보험샵」으로 점포에는 여성 직원 3~4명을 배치
 - 스타벅스 점포와 인접하여 젊은층이나 여성 등의 고객을 목표
 - 영업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동 점포에는 손해보험재팬의 보험상품과 자회사인 손해보험재팬히마와리 생명보험의 생명보험 상품을 취급
 - 신규 가입의 청약 접수외 계약내용에 관한 상담이나 계약내용의 변경의 업무를 수행
 - 사고에 관한 상담이나 계약유지 등의 업무는 수행하지 하지 않음.
- 또한, 내점형 보험 판매점의 운영 노하우의 파악이나 분석 등도 실시
 - 취득한 노하우는 동사의 판매 대리점의 지원에 활용할 계획

(FujiSankei Business / 9/2)

□ 일본 기업, 해외 기업 M&A 추진 사상 최대

- 일본에서는 국내기업에 대한 M&A는 감소하고 있으나, 해외 기업 M&A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
- 톰슨&로이터의 조사에 의하면 2008년 상반기 일본 기업과 관련된 M&A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21.9% 감소한 641억 달러(약 6.8조엔)이며, 거래건수 기준으로 6.6% 감소한 1447건임.
 - 일본기업을 인수 대상으로 하는 M&A는 전년 동기대비 44.2% 감소, 건수기준으로도 5.9% 감소
 - 이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영향으로 신용이 불안하고, 거대 자금의 흐름이 막혀있기 때문임.
- 반면, 일본 기업이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는 건수기준으로 4.85 감소한 160건이었지만, 거래규모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대비 2.7배의 241.5억 달러(약 2.6조엔)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업종별은 거래액 최고는 의약품 업계이며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도쿄해상의 5000억엔 규모의 미국손해보험회사 인수가 있음.
- 대외적 배경으로는 세계적인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자산운용이율을 달성해야 하는 대형 펀드 등의 활발한 활동이 최근의 M&A 추세 확산시키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일본의 외국기업 인수의 배경은 해외시장의 고성장에 그 배경을 두고 있음.
 - 저성장 기조의 일본 국내 사업 확대는 불투명한 수익이 예상되는 반면, 고성장 기조의 해외시장 사업 확대는 희망적인 것으로 예상
 - 한편,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M&A가 해외시장 진출에 발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

(R25 9/5일부)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중국, 여행 중 교통사고 ‘여행사책임보험’ 보장범위에 포함

- 최근 여행사로 하여금 강제가입 하도록 규정이 바뀐 ‘여행사책임보험’은 중국 보험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로 중국 보험감독위원회와 국가여유국이 공동으로 <여행사책임보험관리방법(초안)>(이하 ‘관리방법’)이라는 7년 전 규정을 대폭 수정, 업그레이드 하였다고 전함.
- 현행 여행사책임보험의 취약점은 보험배상 범위가 과도하게 좁다는 데 있으며, 이는 여행사가 보험에 가입할 때,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전제조건으로 ‘여행사의 과실 혹은 직무소홀로 인한 사고’로 제한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리방법>에서는 여행자의 인신피해, 재산손실 등에 대해 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여행사의 위탁을 받아 여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인신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보험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없애고, 보험금 최저한도와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여행사의 책임범위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음.
- 한편, 새로운 <관리방법>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 대한 쌍방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회사의 배상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여행사가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음.
 - 규정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1일 이내에 여행사에 제출서류와 증빙자료를 고지하고, 여행사로부터 해당 자료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보험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함은 물론 여행사와 배상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중경상보, 9/4)

□ 통신회사를 이용한 보험상품 증정은 소비자 현혹 행위

- 중국 매일경제신문은 민원신고센터에 최근 보험관련 민원이 적잖이 접수되었다며, 민원인들은 하나 같이 '10109410' 이라는 발신전용 전화번호로 걸려온 '렌통자산관리클럽(聯通理財俱樂部)' 명의의 보험상품 증정 및 판매 권유 전화를 받았다는 것임.
 - 민원인들은 통신회사가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불안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함.
- 민원 관련 전화의 정체는 통신회사인 렌통과 생명보험 회사인 하이강생명(海康人壽)이 공동으로 추진한 일종의 마케팅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하이강생명은 렌통에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하고 렌통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상품 판매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짐.
- 기사에 따르면, 소비자로 가장하여 렌통에 무료보험증정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다음날 렌통 고객센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교통의료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에 이어 곧바로 하이강생명이 출시한 신상품 소개로 보험가입 권유를 받았다고 함.
- 이에 기자는 상품 가입을 보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끊고 난 뒤 무료보험에 가입되었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관련 문의사항은 10109410으로 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며, 남겨진 전화번호는 발신 전용 전화번호인 것으로 보험금 지급 신청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전함.
- 실제로 지난해 10월 이후 무료 증정된 보험상품에 대해 하이강생명에서 한 건의 보험금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음.

(매일경제신문, 9/4)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7년말	08.8.29(금)	08.9.5(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5.77	5.80	0.03
	美 10년국채	4.03	3.81	3.63	-0.18
	英 10년국채	4.51	4.49	4.46	-0.03
	日 10년국채	1.51	1.42	1.44	0.02
주가	韓 KOSPI	1,897.13	1,474.24	1,404.38	-4.7%
	韓 KOSDAQ	704.23	470.28	441.95	-6.0%
	美 DJIA	13,264.82	11,543.55	11,220.96	-2.8%
	美 Nasdaq	2,652.28	2,367.52	2,255.88	-4.7%
	英 FTSE100	6,456.90	5,636.60	5,240.70	-7.0%
	獨 DAX30	8,067.32	6,422.30	6,127.44	-4.6%
	佛 CAC40	5,614.08	4,482.60	4,196.66	-6.4%
	日 Nikkei225	15,307.78	13,072.87	12,212.23	-6.6%
	中 상해종합	5,261.56	2,397.37	2,202.44	-8.1%
	대만 가권	8,506.28	7,046.11	6,307.28	-10.5%
	홍콩 항셱	27,812.65	21,261.89	19,933.28	-6.2%
환율	원/달러	938.20	1,089.00	1,116.90	27.90
	원/100엔	833.33	987.90	1,064.54	76.64
	엔/달러	112.58	108.70	106.50	-2.20
	달러/유로	1.47	1.4727	1.4265	-0.05
	위안/달러	7.30	6.8290	6.8422	0.01